

희망나무

희망나무를
키워주세요

한림후원회 소식지

2014 Vol.02

Contents

03 | 한림후원회 소개
04 | 숫자로 보는 희망나무
05 | 한림후원회와 함께 한 환자들
06 | 2013 한림후원회 소식
08 | 기부 릴레이
10 | 후원자 인터뷰
12 | 지원환자 사연
13 | 지원환자 감사편지
14 | 후원자의 응원 메시지 “힘내세요!”
16 | 지원환자 감사편지
17 | 작지만 위대한 기부
18 | 착한 나눔, 착한 가게
20 | 후원해 주신 분
22 | 가입신청서 및 약정서
23 | 한림후원회 회원이 되시려면

희망나무
희망나무를 키워주세요



[희망나무] 2014년 3월 통권 제 2호

발행일 2014년 3월
발행처 한림대학교성심병원 한림후원회 / 431-796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170번길 22 (평촌동 896)
T. 031-380-6078 / F. 031-380-4082
기획 · 편집 김은경, 박선형, 이경애, 문지혜, 유혜미, 염정희
디자인 그래픽오션 T.02-3422-5612 www.graphicocean.co.kr
ⓒ희망나무 / 이 책에 실린 어떠한 내용도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림후원회 소개

01 한림후원회 설립

한림대학교성심병원 한림후원회는 2010년 10월에 설립되었으며 본원에서 치료 받고 있는 저소득 환자 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환자들의 치료 유지를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02 희망나무를 키워주세요

한림후원회 미션

환자의 치료유지 및 치료연속성을 통해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 지역사회보건증진에 기여함으로써 진정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한림후원회 활동목적

-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휴머니티 실천
-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에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 제공

03 주요사업

의료비 지원 사업

① 입원 및 외래치료 비용 지원

암, 뇌졸중, 심장질환과 같은 중증질환 및 만성질환 환자의 입원 · 수술 및 외래 검사 비용을 지원

② 약물치료비용 지원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약제비용을 지원

③ 간병비 지원

보호자가 없는 저소득 환자의 치료유지를 위해 간병비용을 지원

④ 보장구 지원

보청기, 호흡보조기구, 휠체어와 같은 의료 보장구, 복지용구 등의 구입비용을 지원

기금모금사업

특별 기부금 모금 / 도서바자회 6월, 11월 연2회 실시

04 오시는 길

한림후원회 오시는 길

431-796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170번길 22 (평촌동 896)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지하1층 사회사업팀 내 한림후원회 사무국

- **지하철** : 4호선 평촌역 1번 출구
- **버 스** : 일반버스 1, 3, 22, 52, 52-1
  마을버스 5, 5-1, 5-3, 6, 6-1, 7, 8, 10-1
  좌석버스 333, 3330, 1303

02 Statistics

숫자로 보는 희망나무

2013년 의료비 지원활동

사회사업팀 지원 환자 현황

사회사업팀에서는 원외후원금 연계 및 한림후원회 기금으로 의료비지원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 사회사업팀을 통해 의료비 지원을 받은 환자 수는 총 634명입니다.
총 의료비 지원금액은 1,667,315,684원입니다.



사회사업팀을 통해 의료비 지원을 받은 환자 수

634 명

총 의료비 지원금액 **1,667,315,684** 원

한림후원회 지원 환자 현황

2013년 한림후원회 기금으로 의료비 지원을 받은 환자 수는 총 32명입니다.
산부인과 환자 6명, 소화기내과 환자 4명, 호흡기내과 환자 4명, 이비인후과 환자 3명,
피부과 환자 2명, 비뇨기과 환자 2명, 유방내분비내과 환자 2명, 외과 환자 2명,
혈액종양내과, 감염내과, 치과, 소아청소년과, 신경외과, 류마티스 내과 환자 각 1명이
한림후원회를 통해 필요한 시기에 지원을 받아 치료를 받았습니다.
총 의료비 지원금액은 24,216,470원입니다.



한림후원회 기금으로 의료비 지원을 받은 환자 수

32 명

총 의료비 지원금액 **24,216,470** 원

치료비 지원절차

담당의사에게 사회사업팀 상담요청 → 담당의사가 사회사업팀에 상담의뢰 → 사회사업팀 상담 (경제적 평가 및 서류제출) → 의료비 지원 신청 → 심의 및 지원결정 → 지원결정 통보 (평균 1주일 소요)

※ 상담이 필요한 환자 분이 계시면, 사회사업팀으로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림후원회와 함께 한 환자들

Hallym University Sacred Heart Hospital



04 News

2013 한림후원회 소식

2013. 1. 15

한림후원회–신림종합사회복지관 「저소득주민 의료복지 지원사업」 평가회의

2012년 저소득주민 의료복지 지원사업 평가 및 2013년 진행 방향 논의를 실시하였습니다.



2013. 2. 25

군포의왕교육지원청 방문 교복지원금 전달식

경기도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서 추천을 받은 6명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한림후원회의 바자회 기금으로 교복지원금 180만원을 전달하였습니다.



2013. 2. 27

한림후원회 소식지, 브로셔 제작 및 발행

한림후원회 소식지 〈희망나무〉 창간호가 발행되었고, 후원회 소식을 많은 분들과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3. 2. 27 ~ 2. 28

한림후원회 신규회원 모집 행사 ‘희망나무를 키워주세요’

한림후원회는 2월 27일~28일, 2일 간 교직원 대상으로 신규회원 모집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총 80명의 교직원이 신규 후원자로 가입하였고, 기존 회원 중 16명이 증액을 신청하였습니다.





2013. 6. 10 ~ 6. 15 & 11. 25~11. 30

한림후원회와 함께하는 사랑 나눔 도서바자회 개최

연 2회(6월/11월)에 걸쳐 오픈북과 함께 도서바자회가 개최되었으며, 각각 4,780,000원 / 4,200,000원이 모금되었습니다.



2013. 6. 28

지역사회와 함께 걸어가는 한림후원회 I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간담회'

한림후원회에서는 안양, 군포, 의왕 지역의 시군구청, 보건소, 복지관 등 총 23개 유관기관과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다 많은 환자들의 건강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림후원회의 활동과 의료비지원사업을 알렸으며, 참여기관들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한림후원회는 지역사회의 저소득환자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 나갈 것입니다.





2013. 7월 중

지역사회와 함께 걸어가는 한림후원회 II '착한가게를 찾아라'

한림후원회에서는 보다 많은 환자들의 의료비 지원을 위해 저금통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지역주민들의 큰 관심으로 병원 인근에 착한가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2013. 9. 9 ~ 9. 11

한림후원회와 함께하는 추석맞이 자선행사 개최

한림후원회에서는 9월9일~11일까지 3일간 코오롱&코익과 함께하는 추석맞이 자선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고, 수익금의 일부(코오롱 2,842,363원 / 코익2,000,000원)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05 Donation

기부 릴레이

1

2013.2월

포일맘스클럽 후원금 전달식

의왕시 포일맘스클럽에서 서로돌봄만들기 1기 사업 수익금과 모금된 후원금으로 260만원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이 후원금은 무공성 항문, 다운증후군 등 선천성 이상아로 치료 받고 있는 저소득 가정 환아의 수술비로 지원되었습니다.



2

2013.2월

치과 교수님들의 기부

한림대성심병원 치과 교수님들께서 우리병원에서 치료 받고 있는 저소득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후원금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6

2013.5월

한림대성심병원 축구부 상금 기부

원내 축구팀은 제12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배 보건의약기관축구대회에서 3위로 입상하였습니다. 축구팀은 상금 200만원을 한림후원회에 전액 기부하였으며, 이는 저소득 간이식 환자의 치료비로 사용되었습니다.



7

2013.10월

환자에서 후원자로

본원 정형외과에서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았던 환아의 어머님께서 한림대학교성심병원에서 받은 사랑을 돌려주고자 후원금을 기부하셨습니다.



8

2013.11월

후원물품 기증

병동, 원목실, 환자와 보호자 분들이 환자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기증 받은 물품들은 필요한 저소득 환자들에게 지원되었습니다.



3

2013.4월

익명 후원자의 기부

'한림후원회 파이팅' 이라는 이름으로 50만원의 후원금이 후원회 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4

2013.5월

평촌 훼밀리의원 이명주 원장님

교직원들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한림후원회의 기부가 지역사회에도 이어져 평촌 훼밀리의원 이명주 원장님께서 따뜻한 기부금을 보내주셨습니다.

5



2013.8월

생애 첫 기부

첫 딸, 혜연이의 첫 돌을 맞이하여 아빠, 엄마의 소망을 담아 아이의 이름으로 돌잔치 비용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혜연이가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나눌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9



2013.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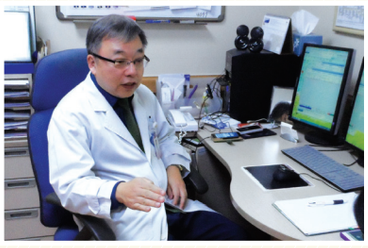
돼지저금통 기부

진단검사의학과 김한성 교수님의 자녀인 김정윤님과 본원에서 근무하였던 김선화 님께서 통통해진 돼지저금통을 한림후원회에 기부하셨습니다.



06 Interview

후원자 인터뷰



고성훈 후원자님

01/ 한림후원회 참여는 언제부터 시작하게 되셨나요? 처음 기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2010년 12월에 한림후원회의 특별한 한끼 나눔 「당신도 산타가 될 수 있습니다」 행사를 통해 후원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후 1만원으로 부담 없이 후원하였습니다. 처음 시작이 어려웠어요. 기부하는 사실이 보이기 위한 행위처럼 여겨지는 것 같기도 하여 처음 후원을 시작할 때 조심스럽기도 하였고요. 아마 다른 사람들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처음 기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우리 가족 중에 한 식구가 아파서 병원치료를 받게 되었을 때 동료 교수들이 교수 성의회성금을 모아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당시 고마운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의료보험이 있어도 치료비용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수입이 없는 환자와 가족들의 경우는 절망을 느낄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기를 계기로 기존에 다른 후원을 하고 있었으나, 기부를 더 많이 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후원을 결정하고 나니까 마음이 좋았습니다.

02/ 한끼 나눔에서 시작하여 점차 증액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요?

한끼 나눔에서 1만원 기부를 하다가 최근에 10만원 기부로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부터 증액을 하고 싶었지만 후원회 명단에 후원금액이 표시되어서 부담이 되었어요. 그러던 중 다른 동료 교수가 10만원 기부하는 것을 명단에서 보게 되었고, 그렇다면 나도 부담 없이 증액하여 후원해도 주목받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이전부터 고려해왔던 증액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03/ 특별히 「한림후원회」에 기부를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직접 만나는 환자들을 도울 수 있다는 점이 다른 후원과 다르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오랜 기간 우리 병원 사회사업팀의 활동을 보아오면서 후원금을 투명하게 사용할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림후원회의 활동을 믿는 것이지요.

04/ '기부'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어려운 질문이예요. 기부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기부를 시작한 후에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 자신이 즐거워요. 기부함으로써 상황이 어려운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는 사실이 즐거움을 갖게 합니다. 주저하다가 기부를 하고 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맛있는 음식 먹는 것과 여행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것과는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기분 좋고 뿌듯합니다.

05/ 한림대학교성심병원에 「한림후원회」가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림후원회가 있어서 우리 병원 환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이 이뤄지니까 훨씬 좋죠. 저희 식구가 아팠을 때 헌혈증이 절실히 필요했는데, 당시에 저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로부터 헌혈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분들의 도움이 감동으로 다가왔고,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병원에 한림후원회가 있다는 것은 감동과 위대한 일이 우리 병원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뜻과 같습니다.

06/ 기부금액의 많고 적음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에게 먼저 기부문화에 동참하고 있는 동료로서 한 말씀 해 주신다면?

기부금액은 본인이 생각해서 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이 성의가 있고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다만 제가 상대적으로 한림후원회에 많은 금액을 기부하고 있는 것이라면, (후원자 명단의 제 이름이 주목받는 것이 아직도 부담스럽긴 하지만) 제가 다른 동료에게 영향을 받은 것처럼 증액 신청을 고민만 하고 있는 다른 교직원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어 서로가 서로에게 그 영향을 주고받게 되길 바랍니다.

07/ 어떤 분들에게 기부의 물결을 잇고 싶으신가요?

기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조심스러워서 망설이고 있는 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한림후원회에서 캠페인이나 행사를 할 때에 자연스럽게 동참하거나 저금통을 채우는 것부터 시작하는 방법을 권하고 싶습니다.

08/ 앞으로의 후원계획은 어떠한가요?

여력이 되는 한 지속적으로 한림후원회 및 외부 후원기관에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후원금을 생활비와 분리해서 생각하려고 하며, 매달 수중에 수입이 들어오기 전에 후원금이 처리되는 방식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원래 없던 돈처럼 말이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직은 목돈이 생겼을 때 후원 보다 다른 곳에 사용하고 싶어지니까요.

09/ 한림후원회에 기타 제안하고 싶으신 말씀을 부탁드려요.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악착같이 후원금을 많이 모아서, 더 많은 사람에게 지원이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최소한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일이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07 Story

지원환자 사연

Story 1

아기 은아와 엄마의 아픔을 어루만져주세요.

박은아(가명) 여/14개월

무공성 항문, 다운증후군, 심방중격결손 등



은아는 한부모가정의 1남1녀 중 막내로 태어났지만 선천성 이상인 무공성 항문과 다운증후군으로 인해 세상에 나오자마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은아 엄마는 어려운 환경이지만 기쁜 마음으로 은아가 태어나길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은아가 무공성항문과 다운증후군으로 태어난 것이 모두 엄마 탓인 것만 같아 미안함과 죄책감으로 눈물만 흘리며 있었습니다. 은아네는 은아 엄마가 직장에 다니며 아이들을 돌보아 왔지만 은아의 투병생활이 지속되면서 직장도 그만두어야 하는 막막한 상황이였습니다. 다행히 첫 인공항문수술과 심장수술비는 보건소 지원금으로 마련이 되었지만, 두 번의 인공항문수술과 추가적인 심장수술의 고액 치료비용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포일맘스클럽"에서 한림후원회로 한림대성심병원의 저소득 환아의 치료비를 돕고 싶다는 한통의 전화가 걸려왔고, 은아의 사연을 듣곤 은아를 돕겠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현재 은아는 힘든 수술을 잘 마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꼭 건강하게 엄마 품에 안겨 자랄 수 있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Story 2

다시 걸을 수 있다는 희망

김석준(가명) 남/14세

연소성 류마티스 관절염, 다발 부분



김석준 환아는 강원도 강릉에 살고 있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입니다. 석준이는 또래친구들보다 조금씩 느리고 더뎌 지적장애 1급 판정을 받았지만 잘 뛰어놀고 건강했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이 퉁퉁 붓기 시작하면서 통증과 함께 걷는 것도 힘들어져 석준이의 가족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래도 석준이의 부모님은 치료를 포기할 수 없어 5개월 동안 여러 병원을 다녔지만 석준이는 계속 걸을 수 없었고 호전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고액의 검사와 입원치료를 감당하기 점차 어려워졌습니다.

석준이네 가족은 정부의 수급비가 유일한 소득인 상황입니다. 석준이의 아버지는 지체장애 3급이고 4년 전에는 파킨슨병을 진단 받아 지금은 온몸이 떨려올 만큼 병이 진행되어 일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도 5년 전 자궁경부암 수술을 받았고, 지병인 당뇨와 고혈압을 관리하며 석준이를 돌보느라 일을 다닐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석준이의 갑작스러운 발병과 고액의 치료비는 가족에게 큰 시련이었습니다.

다행히도 후원회의 도움을 받아 석준이는 입원을 하여 정밀검사 후 최선의 치료 방법을 찾아낼 수 있었고, 예전의 기능을 다 찾진 못했지만 휠체어 없이도 걸을 수 있을 만큼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석준이의 가족은 절망에서 희망의 빛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원환자 감사편지

Letter 01



변제희(가명) 올림 여/21
난관-난소 농양

한림대학교성심병원 후원자님께

안녕하세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직접 드리지 못하고 편지로 전하게 되어 아쉽습니다. 갑작스럽게 아파 응급실에서 여러 검사를 거치고 종양일 수 있으니,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은 날이 꿈만 같았습니다.

제 생애 최고로 아팠던 시간이었지만 수술비 걱정에 마음 편히 아프지도 못하였습니다. 하루하루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저는 우연히 사회사업팀을 찾아가 후원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경제적 어려움이 인정되어 한림후원회의 도움으로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후원자님의 성함을 모르는 것이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직접 뵙고 후원자님 덕에 이렇게 치료 잘 받고 건강해졌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 병이 생기게 된 원인이었던 심한 생리통으로 사회생활도 어려웠고 한동안 우울증으로 성당에도 발길을 끊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히 후원자님께 도움을 받고 편지로라도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저도 이제 다시 건강을 되찾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다시 성당도 열심히 나가고 봉사활동으로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께도 나누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드리며, 후원자님께도 늘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건강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Letter 02



신우빈(가명) 올림 남/54
당뇨병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우빈(가명)입니다.
당뇨로 인하여 한림대성심병원 입원치료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며 감동하였습니다.
한림후원회와 모든 간호사 선생님, 교수님, 저를 위해 배려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은혜와 보답을 무엇으로 채워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09 Message

후원자의 응원 메세지 “힘내세요!”

1 강성재님을 향한

강성재님(가명)은 혼자 생활하고 있는 독거노인으로, 지인이 운영하는 모텔 카운터에서 일을 봐주며 받는 적은 월급과 노령연금으로 생계유지하고 있었습니다. 2013년 11월 전립선암으로 진단받아 추가 검사가 필요하였으나 치료비 부담할 능력이 없어 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림후원회를 통해 검사비를 지원받아 추가 검사를 시행하고 이후 치료를 받아나가고 있습니다. 강성재님이 감사한 마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치료를 받겠다는 메시지를 전해오셨습니다.

강성재님 (남/71세) 전립선암



유창희 교수(비뇨기과)의 메시지

강성재님, 최근 우리나라에 고령화 사회가 더욱 진행되면서 강성재님과 같이 병이 있어도 진료비 부담이 커서 병원에 갈 엄두도 못 내고 계신 어르신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환자 분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런 분들을 도와드리는 의료정책이 있지만, 병이 있는 경우 생계문제도 맞물리기 때문에 병원을 찾거나 치료를 받는데 있어서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림후원회에서 그런 부분에 환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그런 도움에 힘입어 강성재님의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성재님도 힘내시고 생계와 치료에 희망을 가지고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2 이경희님을 향한

이경희님(가명)은 언니, 조카들과 함께 월세 집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중퇴로 글을 읽지 못해 직장을 구하지 못했으나, 가끔 가내 부업을 하며 생계비를 마련해 왔습니다. 2012년 7월부터 왼쪽 귀의 통증으로 이비인후과 외래 치료를 지속하다 수술을 권유 받았으나 치료비 마련이 어려워 약 1년 간 치료를 거부한 채 수술을 미뤄왔습니다. 그러다 2013년 4월 경 고름, 통증이 심해지면서 이비인후과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술비 마련이 되지 못한 채 급히 입원을 하였기 때문에 환자와 가족들은 입원 중에도 치료비 부담과 불안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림후원회를 통해 입원수술비를 지원받아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고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퇴원 후 이경희님이 회복된 모습으로 한림후원회에 감사 메시지를 전해오셨습니다.

이경희님 (여/36세) 중이염



홍성광 교수(이비인후과)의 메시지

그동안 걱정이 많이 되셨을 텐데 수술이 잘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건강한 귀로 기쁜 이야기만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파이팅입니다.



박인영 교수(치과)의 메시지

현미에게
현미가 턱이 아파 진료를 보았을 때, 한창 클 나이에 아파하는 현미를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행히 후원회의 지원을 받아 치료를 시작해서 밝아진 모습의 현미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치료가 많이 남았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생활하는 현미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현미 학생, 파이팅 ~!

3 문현미님을 향한

현미(가명)는 중학교 2학년에 다니고 있으며, 부모님, 큰 언니, 작은 언니, 오빠, 총 여섯 식구가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모두 뇌경색으로 후유증이 남아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수급자 가족이 되었고, 이후 영구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정부보조금과 작은 언니의 수입으로 생활해왔습니다. 현미는 오래전부터 턱관절에 이상이 있었으나, 병원비가 비싸다는 이야기를 듣고 치료를 시작하지 조차 못하였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통증이 심해져 다시 병원에 왔을 때는 비대칭과 교합이 좋지 않아 턱관절 장치로 교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치비를 부담할 수 없어서 치료를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한림후원회를 통해 장치비를 지원받아 턱관절 교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미는 밝은 얼굴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문현미님 (여/14) 턱관절 장애



홍보라 간호사(신경과)의 메시지

후원이라는 것이 낯선 저에게 한림후원회의 손길은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병원에서 일하지만 간호사로서의 일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아쉬웠는데,
한달에 coffee 한잔 줄이면 환자분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 후원하게 되었고,
저의 작은 정성이 도움이 되었다고 하니 제가 더 기쁘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한림대병원과 함께 건강해지시길 바라겠으며, 웃는 일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4 유지한님을 향한

유지한님(가명)은 정부보조금으로 생활하고 있는 수급자입니다. 20여 년 전 사업실패로 배우자, 자녀들과 헤어진 후 연락이 끊긴 채 지냈습니다. 동네에 건강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월세가 오래전부터 밀려 가게를 그만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013년 8월 갑자기 걷기가 어려워져서 병원을 찾았고 신경과적으로 진단이 명확치 않아 검사가 필요하였으나 경제적으로 부담되어 검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한림후원회를 통해 검사비를 지원받아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지속해 가고 있습니다. 이후 유지한님은 감사함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유지한 (남/63세) 뇌경색증

지원환자 감사편지

약속합니다.

그런 기적만 일어난다면 저도 언젠가는
누구에게 좋은 일을 해야 되겠지요.



이정미(가명) 여/27

간질 지속상태, 중추신경계통의 탈수초질환,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

먼저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을 만큼 감사를 받아서 이글을 남길 주제나 되는지 송구스럽습니다. 한림후원회와 한림대성심병원 모든 의료진분들과 사회복지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12년 11월 24일 딸의 소식을 듣고 병원에 도착해서 지금까지 반년이란 세월에 수많은 고통과 하루에도 수많은 눈물로 이 병원을 울면서 맴돌곤 했습니다만 누구하나 내 사정을 물어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중에는 돈도 없고 대구에서 근근이 식당일 하면서 두 모녀 가정으로 비록 가난은 했지만 월세 단칸방에서 비좁게 살아 왔지만 가난하다라는 것은 못 느끼고 그나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우리딸 정미(가명)가 두 번째 쓰러지고 나서 돈도 집도 신용도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살아갈 길은 막막하고 정미는 많이 아프고 병원비도 없고 가난도 철저히 밑바닥에 도달 했었습니다.

도저히 딸을 살릴 길이 생각이 안나 모든 걸 포기하고 극단의 길을 선택하기로 하고 퇴원을 하려고 사회사업팀을 찾아가 솔직한 상담을 하였답니다. 극단의 길을 선택한 나에게 희망의 길을 열어준 한림후원회와 한림대성심병원 의료진분은 제게 제2의 인생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가난은 죄가 아닌데도 왠지 가난이 부끄럽고 세상 살아간다는 것이 앞날이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회사업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교직원분들의 후원금으로 지원이 결정되었다는 말을 듣고 우리 두 모녀의 목숨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희망에 용기를 듣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희망이 떠올라 딸을 중환자실에 눕혀놓고 병원 앞 찜질방에서 서빙 일을 취직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루 12시간 근무하면서도 늘 한림대성심병원 이병철 교수님이 우리 정미를 1차 쓰러졌을 때 완벽하게 살려 놓아 주셨기에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매일 우리 딸을 살려달라고 12시간 근무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항상 기도했습니다. 수중에 한 푼도 없이 한달 한달 살아야 하는 우리 두 모녀에 가난이 죽을 만큼의 힘이 들 때마다 사랑의 손길이 이어지더군요.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 목숨이 죽을 때까지 참 감사합니다. 이 보답은 언제 갚으면서 살아질 런지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자식을 살리려는 욕심에 염치도 없이 한림대 의료진 모든 분들께 빚만 지고 간다는 마음보다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또 앞으로의 병마와 싸워야 하는 우리 정미를 불쌍한 내 새끼를 위해서 염치없고 부끄럽지만 후원금을 감사하게 늘 생각하고 살겠습니다.

한림후원회와 의료진분들이 우리 두 모녀를 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말 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미를 기적으로 일어날 수만 있기를 바라는 것이 제 인생에 목표입니다. 약속합니다. 그런 기적만 일어난다면 저도 언젠가는 누구에게 좋은 일을 해야 되겠지요.

늘 한림대성심병원 교직원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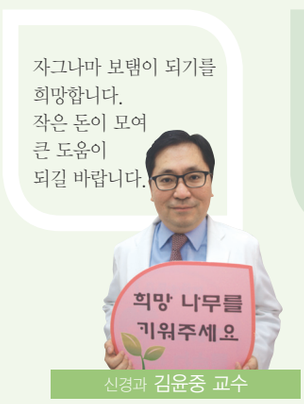
2013년 5월 두 모녀 올림.

작지만 위대한 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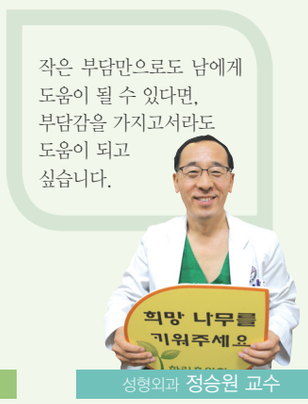
작지만 정성어린 손길들이 모이고 모여
환자, 가족들의 흔들리는 삶을 강하게 지탱해 주는 위대한 힘을 이룹니다.
작지만 위대한 첫발을 내딛어 주신 신규회원, 증액회원님을 소개합니다.

2013년 신규회원 8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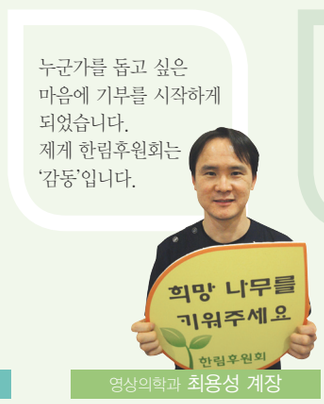
강영례, 강형경, 강현주, 고성혜, 곽소영, 김기우, 김민기, 김선화, 김성애, 김영선, 김영진, 김요한, 김윤중, 김은주, 김재만, 김좌영, 김종미, 김주혁, 김지혜, 김형섭, 김형철, 남혜영, 노근섭, 박명순, 박선홍, 박세찬, 박인영, 박용습, 박지원, 박충기, 배은진, 배현경, 백현준, 서선영, 서혜진, 손준우, 송윤정, 신동의, 신송이, 심진하, 김혜원, 안진희, 양미화, 양병은, 양재순, 연명모, 염정희, 오미선, 오소희, 유경란, 유정연, 유혜미, 윤종현, 이기쁨, 이남재, 이명주, 이순우, 이유리, 이윤경, 이제헌, 이종혁, 이창희, 임선옥, 임유나, 장윤정, 전원문, 정구호, 정승원, 정율리, 조관혁, 조규대, 채준선, 최용남, 최용성, 최은경, 한은애, 한주희, 홍미나, 홍보라, 홍승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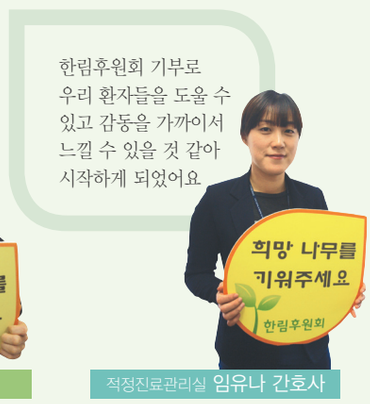
신경과 김윤중 교수



성형외과 정승원 교수



영상의학과 최용성 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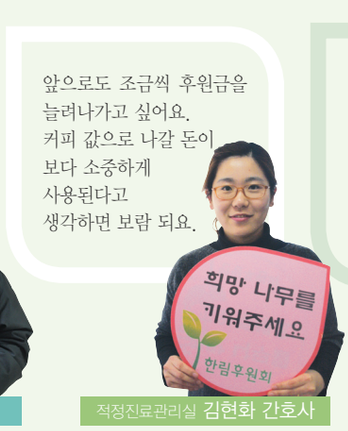
적정진료관리실 임유나 간호사

2013년 증액회원 16명

강희정, 김동원, 김애경, 김양희, 김은경, 김정우, 김현화, 김혜정, 남희순, 백유진, 유진숙, 이경애, 이영경, 조진선, 최 현, 태호열



전기실 김정우 기사장



적정진료관리실 김현화 간호사



내분비내과 유진숙 병리사



총무팀 안내 김동원 직원

착한 나눔, 착한 가게

저금통 모금에 참여해주신, 착한가게 31개 호점을 소개합니다

1호점 오비탈 문구 「사랑이 필요한 분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세요.」
2호점 day day 「따뜻한 커피처럼 따뜻한 희망을 전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호점 두부야 두부야 「사랑의 손길이 늘 채워지기를 희망합니다.」
13호점 충무김밥 「따뜻한 온정을 나눌 수 있는 후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착한가게


01호점 오비탈 문구



02호점 day day



03호점 박준 헤어


04호점 두부야



05호점 가르텐 비어


06호점 마사모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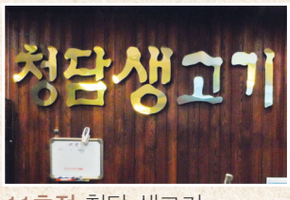
07호점 산들해


08호점 교동짬뽕


09호점 #COFFEE



10호점 제일 의료기



11호점 청담 생고기

Caffé bene
gelato & waffle
12호점 카페 베네



13호점 충무 김밥



14호점 Sand Presso

홍짜장
色 다른 맛의 즐거움
15호점 홍짜장

한림후원회는 저소득 환자, 가족들의 치료비 지원사업에 뜻을 함께하실 착한가게 32호점 주인을 모집합니다.
모금에 참여하실 기업, 단체, 상점은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참여 방법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문의: 한림후원회 TEL. 031-380-6078

17호점 아리따움 「밝은 빛이 되는 후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8호점 코메코메식당 「저희와 함께 하는 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1호점 명가원 설농탕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들이 웃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힘이 되어 주세요.」
24호점 못난이 아구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30호점 가장 맛있는 족발 「지금처럼 사랑을 전달하는 후원회가 되어 주세요.」





16호점 요거프레소



17호점 아리따움



18호점 코메코메 식당



19호점 CU



20호점 참죽



21호점 명가원 설농탕



22호점 홍콩반점 0410



23호점 김밥천국



24호점 못난이 아구나라



25호점 여의도 떡집



26호점 파리바게트



27호점 봉평촌 막국수



28호점 아딸



29호점 새마을 식당



30호점 가장 맛있는 족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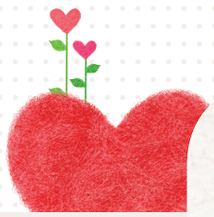
31호점 안양옛집

13 Thank you

후원해 주신 분

감사한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2013년 한 해 동안
한림대학교성심병원 한림후원회에 도움을 주신
후원회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한끼정기후원
78명
2,828,000원

강현주	35,000	김지혜	31,500	백혜성	42,000	이규옥	42,000	정명훈	42,000
고아라	7,000	김태하	42,000	서유라	42,000	이기쁨	35,000	정보라	42,000
곽유림	28,000	김형섭	31,500	송채영	10,500	이봉화	42,000	정승원	35,000
김경미	38,500	김형철	35,000	신동의	35,000	이승순	42,000	정영아	42,000
김광중	42,000	남지훈	42,000	신송이	35,000	이연옥	42,000	정율리	35,000
김병수	42,000	노근섭	35,000	심경신	42,000	이윤경	28,000	조규대	10,500
김애경	42,000	문지혜	42,000	심진하	35,000	이준희	42,000	주민경	42,000
김양희	42,000	박경희	42,000	안광희	42,000	이창국	42,000	최민호	42,000
김영선	35,000	박범정	42,000	양재순	31,500	이창수	42,000	한봉선	42,000
김영진	35,000	박선형	14,000	염정희	31,500	이창희	35,000	한승아	42,000
김요한	35,000	박용습	35,000	오세경	42,000	이희정	31,500	한주희	35,000
김은영	42,000	박이수	42,000	유경하	42,000	임선옥	21,000	홍보라	35,000
김인경	42,000	박지원	35,000	유정연	35,000	임유나	35,000	홍현주	42,000
김인수	42,000	박충기	35,000	유창희	42,000	임정미	42,000	황연주	31,500
김종란	42,000	박형철	42,000	유혜미	35,000	장인복	42,000		
김주혁	10,500	배은진	14,000	이 현	42,000	전덕인	42,000		

급여 자투리후원
64명
1,872,340원

강동훈	750	김지선	46,080	송원희	6,940	윤종희	5,270	전원문	40,910
강영례	50,450	김한성	46,610	송준호	38,820	윤주희	5,880	정광익	50,100
강형경	65,810	김해경	3,280	신선영	6,630	이 슬	3,790	정은옥	6,490
고성혜	3,210	김호영	75,830	신수정	55,840	이경진	3,790	정진영	7,150
김광주	4,370	김효정	64,580	안명희	4,670	이미연	58,910	정화선	6,200
김덕희	69,130	김희진	4,950	안송이	1,110	이상균	4,880	채수인	5,520
김양희	49,810	문명화	6,360	안형미	1,080	이원섭	17,140	최수중	57,480
김연화	4,050	박미란	5,790	양진희	6,540	이은희	5,260	최익준	6,300
김영미	5,520	박상건	3,890	엄태진	7,670	이지연	39,150	최혜인	940
김율빈	860	박선홍	35,440	오미선	56,830	이진희	6,020	한혜경	47,090
김은혜	6,160	박선희	6,150	온석훈	78,410	이해연	6,400	황용일	7,350
김재경	7,530	박혜림	574,690	유경호	4,440	이혜경	6,860	황혜정	5,640
김재만	42,830	백금선	6,900	유인규	6,680	임수영	1,130		



2013년 한림후원회에 기부해 주신 기부자 총 249명

정기후원
74명
10,172,120원

강희정	120,000	김이수	134,840	백유진	240,000	이남재	50,000	조관혁	450,000
고성훈	1,000,000	김인규	120,000	백현준	45,000	이병철	240,000	조진선	57,000
곽소영	100,000	김정우	57,000	서선영	50,000	이순우	45,000	채준선	60,000
권영준	420,000	김현화	110,000	서혜진	100,000	이영경	107,000	최경옥	12,000
김경희	11,000	김형종	120,000	손준우	10,000	이용희	60,000	최용남	35,000
김기우	150,000	김혜정	120,000	송제민	60,000	이유리	100,000	최용성	50,000
김동원	107,000	남희순	107,000	송홍지	240,000	이재석	60,000	최은경	100,000
김민기	100,000	노태영	270,000	심은정	10,000	이제헌	40,000	최 현	32,000
김선화	79,020	문아영	11,000	양미화	50,000	이효정	600,000	태호열	107,000
김성애	200,000	민수기	60,000	유경란	60,000	임승린	60,000	한은애	94,410
김영미	60,000	박경희	120,000	유성종	60,000	장승훈	126,000	함단옥	12,000
김영희	1,400,000	박명순	50,000	유진숙	57,000	장윤정	60,000	홍미나	50,000
김윤중	90,000	박선미	12,000	윤종현	300,000	정기석	120,000	홍성광	240,000
김은경	117,850	박세찬	100,000	이경애	107,000	정수연	12,000	홍혜식	60,000
김은주	200,000	박철규	60,000	이관섭	126,000	정환미	11,000		

일시후원
19명
1,407,610원

김순중	19,750	렉꿀이	7,360	배현경	100,000	양병은	100,000	정구호	3,500
김종미	3,500	민성근	8,400	송윤정	100,000	연명모	10,000	홍순영	25,000
김좌영	600,000	박인영	100,000	심혜원	100,000	오소희	100,000	홍승표	3,500
남혜영	3,500	박흥식	19,600	안진희	100,000	이종혁	3,500		

특별후원
8명
15,900,000원

김미희	1,100,000	베데스다	2,000,000	이명주	120,000	포일맘	2,700,000
김용혜	300,000	오픈북	8,980,000	전찬욱	200,000	한혜연	500,000

착한가게 저금통후원
6명
178,470원

더샵	26,050	우리은행	33,910
데이데이	64,340	홍짜장	7,060
수납	36,660	CU	10,450

Application Form

Hallym University Sacred Heart Hospital

한림대학교성심병원 한림후원회 신청서

1. 개인정보

성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			
후원자료 수령	☐ 이메일 ☐ 우편 ☐ 필요 없음		

※ 개인정보는 후원관리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후원자 구분 및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 필요합니다.

2. 후원정보

☐ 한끼후원	매월 한끼식사 3,500원
☐ 정기후원	매월 _____원
☐ 일시후원	후원금액 _____원
☐ 후원방법	☐ 급여 공제(교직원에 한함)
	☐ 자동이체 ☐ 5일 ☐ 10일 ☐ 25일
	☐ 직접입금(입금 예정일 _____)

※ 본인은 상기 결제방식을 이용하여 월 정기 후원금을 출금(결제)하는데 동의하며 결제와 관련하여 변경이 있을시 한림대학교성심병원 한림후원회와 상호협의 하에 조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위 사항과 같이 한림대학교성심병원 한림후원회 회원이 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후원 신청자 성명 _____ (서명)

한림대학교성심병원 한림후원회 회장 귀하

※ 한림대학교성심병원 한림후원회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취선

한림후원회 회원이 되시려면

1/ 가입방법

한림후원회에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와 같이 본 후원회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한림대학교성심병원 한림후원회 홈페이지와 커뮤니티를 확인하시면, 회원가입 및 후원회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 http://hallym.hallym.or.kr ▶ 진료안내 ▶ 진료지원부서 ▶ 사회사업팀 ▶ 한림후원회
| 커뮤니티 | Refomax(GW/KMS) ▶ 커뮤니티 ▶ 검색 창에 "한림후원회" 검색 (교직원에 한함)

2/ 희망나무를 키워주세요

여러분 모두가 한림후원회의 후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후원금은 입원 및 외래치료비, 약제비, 간병비, 보장구 비용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환자들에게 사용됩니다.

3/ 희망은 혜택으로 돌아옵니다

한림후원회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후원회에 가입하고자 하시는 분은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후원회에 팩스 또는 우편,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4/ 가입대상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5/ 가입절차

한림후원회 사무국 전화 및 방문 ▶ 접수 및 회비 납입방법 결정 ▶ 한림후원회 후원자 등록 ▶ 회비납입

6/ 납입방법

① **급여공제** : 교직원의 경우 한림후원회 사무국에서 급여이체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② **자동이체** : 후원자께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래은행에 방문하여 이체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③ **직접입금** : 한림후원회 후원계좌로 후원금을 입금해주시면 됩니다.
④ **기타후원** : 헌혈증 등 현물후원도 가능합니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170번길 22 (평촌동 896)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지하1층 사회사업팀內 한림후원회사무국
Tel : 031-380-6078 **Fax :** 031-380-4082 **Email :** hopetree@hallym.or.kr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901-745651 (예금주: 한림후원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170번길 22 (평촌동 896)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지하1층 사회사업팀內 한림후원회사무국 Tel : 031-380-6078 Fax : 031-380-4082 Email : hopetree@hallym.or.kr